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3자간 데이터 연대

중기중앙회·한전·코리아크레딧뷰로,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공급 제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코리아크레딧뷰로(사장 황종섭)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리더스룸에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앙회장, 김동철 한전 사장, 황종섭 KCB사장 및 주요 관계자 20명이 참석하여, 기존 신용평가 체계의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하며 포용적인 금융지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휴에 앞서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성공하고 이번 서비스 제휴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모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전기사용량, 전기요금납부정보 등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보유한 다양한 대안 신용정보와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모형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에 비해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에 대한 변별력 높아 218만(전체 소상공인의 38%)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휴와 관련해,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4대 시중은행의 개

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계속 줄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금융권 문턱'은 높고, 이자 부담도 상당한 지경이다"라면서, "이번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이 시행 중인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이 보유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종섭 KCB사장은 "이번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기존 금융거래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별적 데이터와 방법론으로, 모형 성능 개선과 동시에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중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다"라면서, "KCB는 AI 기반 데이터 융합 기술로 신용평가를 혁신하며, 포용적 금융 환경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에 그치지 않고, 세심하고 촘촘한 중소·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AI기반 매운맛 솔루션’ 혁신 주도

바이오산업진흥원, 에프엘컴퍼니 시드투자 이어 ‘팁스’ 선정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 (주)에프엘컴퍼니(대표 이종혁)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

팁스(TIPS)는 민간투자와 정부 R&D 자금을 결합해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에프엘컴퍼니는 팁스 선정으로 2년간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했고,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등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 시 추가로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미 ‘저세상 직화 무뼈닭발’ 등 매운맛 특화 제품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한 (주)에프엘컴퍼니는 지난 3월 씨엔테테크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해 성장성을 입증받았으며,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최적의 매운맛 밀키트·소스를 추천·제조하는 플랫폼인 ‘AI기반 고객 맞춤형 매운맛 솔루션’ 혁신 주도

출형 매운맛 추천 서비스'를 통해 HMR(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에프엘컴퍼니는 2021년 바이오진흥원에 예비창업자로 입주한 이후 창업 스케일업, 특허역량 교육상, 농생명 대표기업 육성사업 등 진흥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성장하여 전년도에는 매출 10억원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R&D 인프라(시험분석 및 생산장비) 제공은 물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과 투자사 연계를 통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에프엘컴퍼니 이종혁 대표는 "예비창업자로 입주하여 진흥원의 전문 인력 멘토링,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네트워크 지원 등 바이오진흥원의 체계적인 보육 덕분에 투자유치와 팁스 선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9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영 및 영업성과와 하반기 경영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북은행만의 영업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은행은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핵심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디지털경쟁력 확보 및 플랫폼 고도화 △리스크 관리 고도화 △ESG경영·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성장하며 신뢰받는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 기준금리 변동성, 정책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건전성 중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지역 동반성장 및 은행 핵심전략 추진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전북 혁신기업 고충 “현장 목소리 직접 듣다”

전북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신규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는 9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신규 혁신기업 4개사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9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신규 혁신기업 4개사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혁신기업인 △대륜산업(주), △울진공업(주), △이원컴포텍(주), △이파캠텍(주) 4개사 실무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각 기업의 실무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고,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원과 정책 등을 안내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 혁신기업 육성사업 세부사업 안내와 '지원사업 진행 및 절차 방법'이며, 지원사업은 △R&D 사전 기획, △자율프로그램, △

지속가능 경영혁신(ESG) 등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재 고용확대 및 인력 확보, 미국 통상정책관련 관세 대응, 지역기업의 한계 및 극복 방안, 기업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지원정책 애로사항 건의 등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진행 지원 사업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할 계획이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세부사업 공고 및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www.j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게 단발성 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밀착형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들을 꾸준히 성장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육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처음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혁신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3년 평균 100억원 이상, 전년도 수출액 50만불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

중소기업 협력사업 확대 추진... 판로개척·맞춤형 컨설팅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등, 상생 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우선 전기안전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상생누리(winnuri.or.kr) 플랫폼을 통해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대상 7곳을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당 7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일·가정양립 지원 △신

제품 개발 △마케팅 개선 △환경·사회·부영(ESG) 경영 지원 등 기업의 필요에 맞춘 컨설팅이 지원된다.

여기에 '전북 농어업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우수 업체 12곳을 대상으로 K-푸드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월 방문자 수 3억원 상당의 글로벌 쇼핑몰 '쇼피(Shopee)'에 K-농어촌 식품권을 만들어 입점부터 현지인 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배송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건물에너지지시협원, 도민 주거환경 개선 협약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9일 공사 사옥에서 KOLAS(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주)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대표 김영동)과 함께 도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와 협약 파트너인 (주)한국건물에너지시험원(대표 김영동)이 협업하

여 발주현장 품질관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강화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 기준에 대응하고, 소속 직원 및 현장관계자 품질관리 기술 습득 및 역량 함양을 통하여 도내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